정보

개요
곡명: La mer, trois esquisses symphoniques pour orchestre, CD 111 / L. 109
작곡가: Claude Debussy (1862–1918)
작곡 시기: 1903년 8월 –1905년 3월 5일
헌정: Jacques Durand
초연: 1905년 10월 15일, Paris Nouveau-Théâtre, Concerts Lamoureux; Orchestre Lamoureux, Camille Chevillard
장르: 관현악을 위한 세 개의 교향적 스케치
IMSLP: La mer, CD 111

Wikipedia: La mer (Debussy)

Debussy의 La mer는 De l’aube à midi sur la mer, Jeux de vagues, Dialogue du vent et de la mer 의 세 악장으로 이루어진 관현악 작품이다. 첫 악장은 새벽에서 정오까지의 긴 팽창을, 둘째는 짧은 음형이
끊임없이 이동하는 파도의 움직임을, 셋째는 앞선 재료가 돌아오는 가운데 바람과 바다가 맞서는 종결을 이룬다. Debussy가 붙인 trois esquisses symphoniques 라는 부제는 세 장면을 나열한 묘사곡만으로 작품을 한정하지 않는다. Noël Goodwin의 해설에서 esquisses 는 회화적 장면을, symphoniques 는 악장 사이의 화성 관계와 순환적 회귀를 가리킨다.

작품은 바닷가가 아니라 1903년 여름 Bourgogne의 Bichain에서 시작되었다 . Debussy는 그해 9월 André Messager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다에 대한 수많은 기억이 작업실 풍경보다 낫다는 취지로 썼다. 1905년 3월 5일 자로 완성된 관현악 정서본은 BnF에 남아 있다. 그해 여름 Eastbourne에서는 출판 교정을 보았으므로
그곳에서 작품을 완성했다는 통설과는 구분해야 한다.

소요 시간

출판사 Breitkopf & Härtel은 약 23분, Berliner Philharmoniker는 약 25분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전곡은
약 23–25분이며 3악장의 폭을 크게 잡는 공연은 28분을 넘기도 한다.

I. De l’aube à midi sur la mer: 약 8–9분
II. Jeux de vagues: 약 6–7분
III. Dialogue du vent et de la mer: 약 7–8분

Yan Pascal Tortelier와 Ulster Orchestra의 1991년 Chandos 녹음은 8:22ㆍ 6:23ㆍ 7:16, François-Xavier Roth와 Les Siècles의 2012년 실황은 8:44ㆍ 6:38ㆍ 7:42다. 악장별 시간은 이 두 공식 트랙 자료를 반올림한

범위이며 고정 규격이 아니다.

편성

Woodwinds: Piccolo, 2 Flutes, 2 Oboes, Cor anglais, 2 Clarinets in A, 3 Bassoons, Contrabassoon. Brass: 4 Horns, 3 Trumpets in F, 2 Cornets in C (3악장에서만), 3 Trombones, Tuba.
Percussion: Timpani, Bass drum, Cymbals, Triangle, Tam-tam, Glockenspiel.
Others: 2 Harps, Strings.

두 대의 코넷은 3악장에만 쓰이고 글로켄슈필은 2ㆍ 3악장에 나온다. BnF의 식자용 자필 총보에는 출판을
준비한 다른 손의 표시와 Debussy의 수정이 함께 남아 있다. Bärenreiter의 facsimile 해설에 따르면 Jeux de vagues 의 하프 glissando에는 연주자와 상의한 뒤 개선한 표기법을 적은 종이가 붙어 있다. 이 흔적을 보면 특수한 음색 효과도 관념만으로 정하지 않고 연주자와 상의해 악보에 옮겼음을 알 수 있다.

출판 정보와 판본의 계보

Durand는 1905년 자필 정서본을 식자본으로 사용해 그해 총보 초판을 냈다. Peter Jost의 비평보고서는 공식 발행일을 11월 15일로 기록한다. 표지에는 Hokusai의 파도 목판화 일부가 사용되었다 . 초판 뒤에는 Debussy 가 직접 고친 세 권의 총보가 남았지만 교정 내용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중 한 권은 일부만 연구할
수 있어 모든 수정의 순서를 확정하기도 어렵다.

1909년 제 2판은 Debussy가 승인한 마지막 인쇄 총보에 해당한다. Jost가 편집한 Breitkopf Urtext는 이 판을 주자료로 삼는다. 그 뒤에도 손질은 계속됐다. Debussy는 1913년 아내의 개인 장서에 들어간 총보에 교정을 남겼고, Marie Rolf가 편집한 Bärenreiter Urtext는 이 자료까지 검토한다. 1909년판을 마지막 인쇄판 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이후의 작곡가 수정이 전혀 없는 절대적 최종본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장 잘 알려진 차이는 3악장 237–244마디다. 1905년 초판에는 호른 Iㆍ III와 트럼펫 Iㆍ II의 반음계적
대선율이 있지만 작곡가 교정본 일부에서 삭제되기 시작해 1909년 제 2판에서는 사라진다. Breitkopf판은 1909년 상태를 우선하고 Bärenreiter판은 삭제된 음을 작은 음표와 괄호로 제시한다. 현대 공연에서 이
선율을 되살리는 선택은 초판의 상태와 지휘 전통에 근거한다. 다만 그것을 작곡가의 단일한 최종 의도로
단정할 수는 없다.

초연과 1908년의 전환

1905년 10월 15일 Camille Chevillard가 지휘한 초연은 청중의 냉담과 엇갈린 비평을 맞았다. Pierre Lalo는 바다를 듣거나 보거나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반면 Paul Dukas는 작품의 기교와 완성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Debussy의 지지자 일부가 제목에서 더 급진적인 갱신을 기대해 실망했다고 보았다. 당시의
사생활 논란이나 Chevillard의 현대음악 처리도 가능한 배경으로 거론되지만 초연 반응의 단일 원인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Debussy가 1908년 1월 19일과 26일 Paris에서 직접 지휘했을 때 반응은 달라졌다. Boston Symphony Orchestra의 프로그램 노트는 이 무대를 그의 작품으로 한 지휘 데뷔이자 Pelléas et Mélisande 이후 가장 큰

대중적 성공으로 설명한다. `진짜 초연`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초연 때의 냉담한 반응을 벗어나 꾸준히 연주되는 레퍼토리로 자리 잡기 시작한 전환점이었다.

I. De l’aube à midi sur la mer

Tempo: Très lent – Modéré, sans lenteur – Très rythmé – Très modéré – Très lent.

낮은 현악기와 서로 메아리치는 두 대의 하프, 팀파니로 어둡게 시작한다. 짧은 동기와 2분할·3분할 리듬이 겹치며 악기군이 늘어나고 악장은 정오의 넓은 절정을 향해 긴 crescendo를 이룬다. Jacob Greenberg의 BSO 해설은 이 진행을 하나의 긴 상승 곡선으로 설명한다. 선명한 한 주제를 되풀이하기보다 음역과 밀도, 음색이 바뀌면서 운동을 지속하는 방식이다.

악장 끝의 큰 합주는 출발점과 분리된 효과가 아니다. 낮은 음역에서 제시된 짧은 윤곽과 리듬이 확대되어 종결에 도달한다. 첫 악장의 일부 재료가 3악장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이 과정은 첫 장면의 완결인 동시에 전곡의 뒤쪽을 준비한다.

II. Jeux de vagues

Tempo: Allegro – Animé.

둘째 악장은 세 악장 구성에서 Scherzo에 가까운 역할을 한다. 완결된 선율을 길게 유지하기보다 짧은 선율 단위가 리듬을 바꾸고 목관악기·현악기·하프·타악기 사이를 옮겨 다닌다. BSO 해설은 짧은 관악기 독주와 마지막의 트럼펫·피콜로 선율을 이 이동의 구체적 사례로 든다.

Simon Trezise는 60마디 이후의 반복 화음에서 8분음표 tenuto와 셋잇단 16분음표 staccato, `p`와 `très léger`가 동시에 요구된다고 분석한다. Piero Coppola의 1932년 녹음은 이 복합 articulation과 절제된 현악기 vibrato를 또렷하게 들려 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 녹음의 악장 시간은 약 5분 30초로 빠르지만 특징은 속도만이 아니라 목관악기와 하프가 현악기를 뚫고 자연스럽게 들리는 균형에 있다.

III. Dialogue du vent et de la mer

Tempo: Animé et tumultueux.

오보에·잉글리시 호른·바순의 높은 음역에서 반음계적 셋잇단음형이 나타나고 낮은 현악기와 금관악기가 응답한다. 서로 다른 2분할·3분할 리듬이 겹치며 밀도가 높아지고 첫 악장의 리듬과 재료가 돌아와 세 장면을 연결한다. 금관 chorale과 팀파니의 당김음이 마지막까지 밀어붙인다는 설명도 BSO 프로그램 노트가 구체적으로 짚는 부분이다.

이 악장의 큰 음향은 판본 선택에 따라 내부 윤곽이 달라진다. 237–244마디의 초판 대선율을 복원하면 호른과 트럼펫이 별도의 반음계적 선을 보태고 1909년판을 따르면 그 선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구간으로 이어진다. 어느 쪽이든 코넷·트럼펫·호른·타악기의 모든 성부를 같은 강도로 키우는 문제로 환원되지 않는다. 실제 차이는 음량보다 몇 개의 독립된 선이 절정으로 들어가느냐에 있다.

작곡가의 지휘 준비와 tempo의 유연성
Debussy가 Édouard Colonne에게 1908년 1월 8일 보낸 편지는 이 작품의 실연을 직접 다룬다. Jost의 비평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총보 56쪽의 Trumpet mute를 제거해 곡 끝까지 다시 쓰지 말라고 했다. First Clarinet은 초록색으로 표시한 곳에서만 Oboe를 겹치도록 지정했다. Cello와 Double bass part의 누락도 바로잡았다 . 1909년판의 변화가 막연한 색채 수정이 아니라 mute와 doubling, Celloㆍ Double bass part 같은 구체적인 실행 문제에서 나왔음을 보여 주는 자료다.

초연 오보에 연주자 Fernand Gillet의 후일 회고에는 Debussy가 rehearsal에서 전날과 다른 tempo를 요구한 일화가 나온다. Chevillard가 그 차이를 지적하자 Debussy는 날마다 음악을 똑같이 느끼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정확한 마디가 기록되지 않은 사후 회고이므로 특정 구간의 지시를 대신할 수는 없다. 다만 세밀한 악보 표기와 순간의 감각을 함께 다루었던 작곡가의 rehearsal 태도를 전하는 증언으로 읽을 수 있다.

녹음으로 확인하는 서로 다른 선택

Piero Coppola / Orchestre de la Société des concerts du Conservatoire (1932): Trezise는 Jeux de vagues 의 가벼운 articulation, 절제된 vibrato와 목관악기ㆍ하프의 투과를
장점으로 분석한다. 초기 녹음 기술의 음역과 dynamics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Coppola가 Debussy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이 녹음을 작곡가가 승인한 해석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Arturo Toscanini / BBC Symphony Orchestra (1935): Jürg Stenzl은 기본 tempo의
조직력과 작은 rubato 안에서 선율을 통합하는 방식을 강조한다. Trezise는 반대로 일부 호른
선율과 3악장 절정의 현악기를 앞세워 더 극적인 관현악으로 재구성한다고 지적한다. 형식의
명료함을 높였다는 동시대 평가와 음향 위계를 과장했다는 후대 분석이 공존하는 기록이다. Pierre Boulez / New Philharmonia Orchestra (1966), Cleveland Orchestra (1993): Boulez는 1970년 인터뷰에서 Debussy 연주가 우아함과 달콤함에 머무는 것을 비판하고 선과 비례 , 긴장, 돌발적인 폭력성을 강조했다. 두 녹음의 Jeux de vagues 는 각각 7:14와 7:03으로 비교적 느리다. 그의 명료성은 빠른 tempo보다 느린 흐름 안에서 성부와 리듬을 분리하는 데 가깝다. Trezise는 1966년 녹음이 1악장의 한 대목에서는 1905년 상태를, 다른 주요 수정에서는 1909 년판을 따르는 혼합 text라고 지적한다.
François-Xavier Roth / Les Siècles (2012): 공식 해설서는 1900년 전후 프랑스 목관악기와 금관악기, gut strings와 초연에 사용된 Érard 하프를 썼다고 기록한다. BBC Music Magazine은 구별되는 관악 음색과 생동감을 이 녹음의 장점으로 꼽았다. 시대악기 사용은 Debussy가 알았던
악기의 발음과 균형을 현대 관현악단과 직접 비교하게 해 주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유일한 정답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주요 자료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작품 전거: 작곡 기간, 정식 표제, 세 악장, 헌정과 초연 정보를 제공한다.

LSO Liveㆍ Noël Goodwin 작품 해설: Bichain에서 시작한 작곡 경위와 세 악장의 순환 관계를 설명한다.

Berliner Philharmoniker 프로그램 노트: 일반 소요 시간과 악장별 tempo 표기를 제공한다. Chandos CHAN 10144: Tortelierㆍ Ulster Orchestra 녹음의 트랙 시간과 녹음 정보를 제공한다. Philharmonie de Paris 공연 자료: 28분을 넘는 실제 공연의 전곡ㆍ악장별 시간을 제공한다. BnF 자필 총보 Ms. 967: 1905년 3월 5일 자 식자용 자필 총보와 세 악장 표제를 확인한다. Peter Jost, Kritischer Bericht PB 5399: 자필ㆍ초판ㆍ작곡가 교정본ㆍ 1909년 제 2판의 계보와 1908년 Colonne 편지를 정리한다.
Bärenreiter, Marie Rolf 편집 La Mer: 1913년 교정본과 3악장 237–244마디의 선택적 수록을 설명한다.
Bärenreiter facsimile 안내: 자필 총보의 식자 표시와 Jeux de vagues 하프 glissando 수정지를 다룬다.
Boston Symphony Orchestra 프로그램 노트: 초연과 1908년 공연, 세 악장의 관현악 진행을 설명한다.
Simon Trezise, Debussy: La Mer, 3장: 판본 차이와 Coppolaㆍ Toscaniniㆍ Boulez 녹음을
구체적 대목에서 비교한다.
Jürg Stenzl, Arturo Toscanini und die französische Musik: 여러 녹음의 tempo와 구간 길이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다.
Les Sièclesㆍ François-Xavier Roth 해설서: 2012년 트랙 시간과 시대악기 편성을 기록한다. TIME, Debussy Rediscovered: Debussy 연주의 선ㆍ비례ㆍ긴장에 관한 Boulez의 1970년 발언을 싣는다.
BBC Music Magazine, La mer by Debussy: 역사적ㆍ현대 녹음과 Rothㆍ Les Siècles의 음색을 평가한다.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6:57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06:57 UTC by 안준영